

외교부

중미 경제무역 협상기제 첫 회의 관련 질문에 답변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최근 소셜미디어에 발표한 중미 경제무역 협상기제 첫 회의의 관련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림검은 11일 오후 중국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기제 첫 회의에 관한 소식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는 량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하에 개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량측은 량국 정상이 6월 5일 통화에서 이룬 중요한 합의를 리행하고 제네바 경제무역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달성함으로써 상호 경제무역 관심

사 해결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림검은 중국은 졸곧 말한 것은 반드시 리행하고 행한 것은 반드시 성과를 내었다면서 이미 합의를 이루었으니 량측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중국과 함께 량국 정상이 통화에서 이룬 중요한 합의를 리행하고 중미 경제무역 협상기제의 역할을 발휘하여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증진하고 오해를 줄이며 협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리성강 : 제네바 회담 합의 리행 위한 기본틀 달성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이며 부부장인 리성강은 10일 저녁 영국 런던에서 지난 이틀간 중미 량측 대표단은 심도있는 교류를 통해 지난 5일 량국 정상간의 통화에서 이룬 합의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리행하기 위한 기본틀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리성강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기제 첫 회의가 끝난 후 국내외 기자들에게 중미 량측 대표단의 소통이 “매우 전문적이고 리성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런던 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중미간의 신뢰를 보다 증진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한층 더 촉진하는 데 유

리하게 작용해 글로벌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량측은 이번 회의의 상황과 원칙적으로 합의된 기본틀을 각각 량국 정상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리성강은 이번 회담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한 영국정부에 감사

를 표했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중미 경제무역협상 중국측 수장인 국무원 부총리 하립봉과 미국측 수장인 재무부장 베선트, 상무부장 러트닉,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어는 런던에서 중미 경제무역 협상기제 첫 회의를 열었다.

/ 신화넷

240 시간 무비자 입국 국가 55 개로

12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인도네시아 국민은 240 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적용받아 중국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국의 240 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 적용 국가는 55 개국으로 늘어났다.

현재 인도네시아, 로씨야, 영국 등 55 개국 국민은 유효한 국제여행 증명서와 확정된 날짜 및 좌석이 표기된 연계 항공권을 소지하고 중국

을 경유하여 제 3 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북경, 상해 등 24 개 성(구·직할시)의 60 개 개방통상구 중 임의의 항구에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역에서 10 일 이내로 체류 및 활동이 가능하다.

체류 기간 관광, 상업, 방문, 친척 방문 등 활동이 허용되지만 취업, 학습, 언론 취재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활동은 여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국제방송

이재명

한국—조선간 대화채널 조속한 복구 희망

12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한국—조선간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일, 한국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후부터 접경 지역에서의 대조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할 것을 한국군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한국—조선간 신뢰를 회복하

고 대선 기간 한국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측이 대조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년 만에 중단을 발표한 것이다.

12일, 한국군은 이날 대조선 감청 지역에서 조선의 대한국 소음방송이 들리지 않았다면서 조선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국제방송

서울

혼인신고수·신생아수 12 개월 연속 증가

8일,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 서울의 혼인신고수와 월별 신생아수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의 여러 매체는 8일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 올해 3월 서울에서 3,814 쌍의 신인이 혼인신고를 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여 월별 혼인신고수가 ‘12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또 3월의 서울 신생아수는 3,786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시 월별 신생아수는 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지만 2022년 3월의 4,027 명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치다.

분석가들은 서울의 혼인신고수와 신생아수가 모두 연속 증가한 것은 코로나사태 이후 사람들의 결혼 및 출산 건수가 반등하고 정부가 일련의 정책을 내놓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등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했다.

/ 신화넷

일본

작년 신생아 70 만명 미만… 역대 최저

일본 후생로동성이 6월 4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24년 신생아수는 68만 6,000 여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70 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또한 일본의 2024년 합계 출산율은 1.15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 신화넷

인도서 려객기 추락 사고 발생



려객기 잔해

/ 신화넷

알려진 바에 따르면 12일, 인도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공항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보잉 787—8 려객기 한대가 추락해 현재까지 최소 290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려객기는 공항을 리륙한 지 몇분 만에 공항 근처 주거지역에 추락해 인명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항공회사는 이후 성명을 통해 AI—171 항공편이 추락했다고

확인했다. 인도민간항공국은 해당 려객기에 242 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중 인도 국적 승객 169 명, 영국 국적 승객 53 명, 캐나다 국적 승객 1 명, 포르투갈 국적 승객 7 명이라고 밝혔다. 그중 영국인 40 대 남성 1 명이 생환했다.

인도 주재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려객기내에는 중국 국적 승객이 없었다.

/ 국제방송

세계 과학기술 발전 공헌도

상위 10 개 대학중 중국 대학 1 위

세계 과학기술 발전 공헌도 상위 10 개 대학중 중국 대학이 1 위를 차지했다.

《네이처 인덱스》(自然索引)의 대학 순위는 2024년 자연과학 분야 글로벌 저널 145 곳에 발표된 논문들을 조사해 선정됐다. 중국 논문은 3만 2,122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 증가했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계 과학기술 발전 공헌도 1 위 대학은 중국과학원이 차지했다. 2

위는 하버드대학, 3위는 중국과학기술대학이 차지했다. 그외 절강대학 4위, 북경대학 5위, 중국과학원 대학 6위, 칭화대학 7위, 남경대학 8위, 상해교통대학 10 위이다.

《네이처 인덱스》주필 사이먼 베이커는 “이러한 통계는 글로벌 과학연구 구조의 깊은 변화를 보여준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투자가 고품질 과학연구 생산의 빠른 성장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신화넷



▶ 2월 26일,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에서 과학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한 연구원.

/ 신화넷

뉴욕서 수천명 연방정부 이민정책 항의 시위

10일, 미국 뉴욕에서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됐다.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거리에 나와 시청 등에 모여 ‘추방을 멈추라’ 등의 패말을 흔들고 ‘로스안젤레스와 함께 나아가고 후퇴하자’ 등을 외치면서 현장은 한때 통제 불능 상태에 처했다.

로스안젤레스 시위 6 일째, 긴장감 지속

미국 로스안젤레스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위가 11일로 6 일째 접어들면서 시내 중심가 등에는 경찰들이 삼엄하게 대비하고 있으면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로스안젤레스 경찰당국은 전날 야간 통금 시간 동안 2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해병대는 약 700 명의 병력이 소요 사태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스안젤레스 경찰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위 동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11일 밤 최신 소식에 따르면 로스안젤레스

시청 앞 그랜드공원에 모인 대규모 시위군중이 흩어지면서 시청 중심가의 여러 도로가 봉쇄되었고 시당국은 해당 지역을 피할 것을 시민들에게 권고했다.

로스안젤레스 시장 카렌 바스는 11일 저녁 소셜미디어에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로스안젤레스 시내 중심가에 통금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대통령으로 인한) 혼란을 막아 용해 파괴 행위를 자행하는 이들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시내 중심가에 살거나 일하지 않는 사

람들은 해당 지역을 피하고 집법기관의 지시를 따를 것”을 당부하며 “파괴와 폭력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스 시장은 전날인 10일 저녁 시내 중심가 일부 지역에 통금을 선포, 이는 락탈과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로스안젤레스 경찰국은 11일 초반 성명을 통해 통금 첫날 밤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 203 명을 체포했으며 추가로 17 명이 통금 위반, 3 명이 총기 소지, 1 명이 경찰을 향해 치명적 무기 사용, 1 명이 경찰 헬리콥터에 레이저 포인터 조사 혐의로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 ‘상당량’의 비살상 무기를 사용했다.

한편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등 연방기관들은 최근 로스안젤레스 및 주변 지역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을 진행하면서 현지 주민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백악관은 11일 6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330 명이 체포됐다고 확인했다.

바스 시장과 로스안젤레스 린근 지역의 여러 시장들은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기관들의 불법이민자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바스 시장은 “연방기관들의 단속은 이민자 사회 구역에 공포를 조성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약 700 명의 해병대 병력과 4,000 명 규모의 국민방위군이 최근 로스안젤레스에 배치되어 연방기관의 단속을 지원하고 있다. 로스안젤레스지역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미군 지휘관 스콧 셔먼은 11일 해당 해병대 병력이 오렌지 카운티의 실비치에서 소요 사태 대응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해병대가 언제 단속 작전에 투입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신화넷, 국제방송



11일, 경찰들이 로스안젤레스 도심에서 근무하고 있다.

/ 신화넷